

책상은 책상이듯 책은 책이다

김기태 | 출판평론가 ·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문득 페터 비셀이 지은 《책상은 책상이다》를 생각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 어떤 외로운 남자가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언어의 체계 때문에 주위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져 결국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떠올리며 ‘책상’이란 단어의 자리에 ‘책’이란 단어를 대입시켜 봤다. 어쩌면 그렇게도 딱 들어맞는지...

직업 특성상 요즘 나는 책의 미래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아니, 책의 미래라기보다는 이른바 ‘전자책’ (e-book)에 대한 전망을 묻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듯싶다. 그때마다 나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해준다. “종이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전자책도 절대 읽지 않습니다”라고. 그리고 부연할 수 있다면 그 동안 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덧붙이며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우리 출판계를 둘러싼 기류를 들여다보면 ‘그릇 만들기’ 혹은 ‘그릇 가꾸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릇에 따라 밥맛이 좋고 나쁘다는 판단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릇이 달라진다고 해서 보리밥이 쌀밥으로 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제부터가 출판마케팅의 기본 요건으로 자리잡은 ‘제목 잘 정하기’나 ‘표지 잘 만들기’도 내용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는 병폐를 잘 보여주는 사례지만, 역시 우리 출판계 병폐의 극치는 ‘전자책을 둘러싼 이상열기’가 아닐까 싶다. 출판계를 두고 톡 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 운운하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이는 결국 독자 창출이라는 출판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단언하건대, 설사 전자책이 그 기술 덕분에 성시를 이룬다 해도 지금과 같은 독서 풍토 위에서는 전자책 열기는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우스갯소리처럼 출판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하나. 슈퍼마켓 주인, 중견기업체 사장, 복권판매상, 서점 주인 그리고 출판사 사장 가운데 가장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정답은 ‘출판사 사장’이다. 실제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출판사의 사장 방에 들어가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책 읽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펼쳐 있거나 펼쳐져 있는 책들은 자기 출판사에서 낸 것들일 뿐, 다른 출판사의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지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진대 독자들이 책을 사 봐야 할 당위성에 무게를 두고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홍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책이 왜 이렇게 팔리지 않는가 고민하는 출판사 사장을 비롯한 출판계 종사자들이야말로 괴로움을 떨칠 ‘마음의 양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아닐까.

나 역시 그 반성의 대열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불특정 출판사에서 읽고 소개해주기를 바라며 보내주는 신간들 속에 파묻혀서도 즐거운 비명과 함께 책 속을 헤집고 다닌다. 나름대로 좋은 책이 되 여타 매체에서 다루기 힘든 책들을 찾아 먼저 읽으면서 소개할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아직 읽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책들의 대오를 바라보며 되뇌건대, 책상은 책상이듯 책은 책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허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